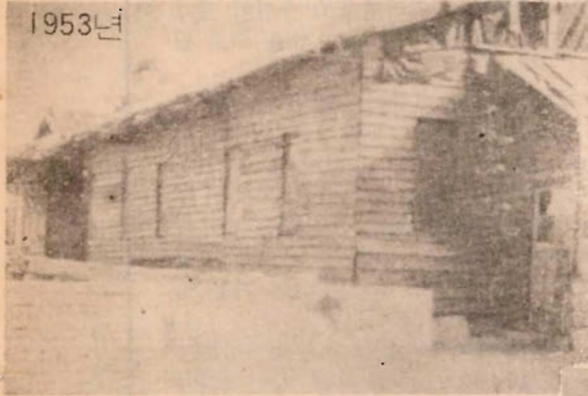


발행인 김 창 인
편집인 위 영 환
주 간 신 성 중

대한 예수교 장로회 충현 교회
100-서울 중구 충무로 5가 36
27-9937 · 9738

1972년 4월 30일 창간
1975년 9월 7일 발행
특권 제21호

195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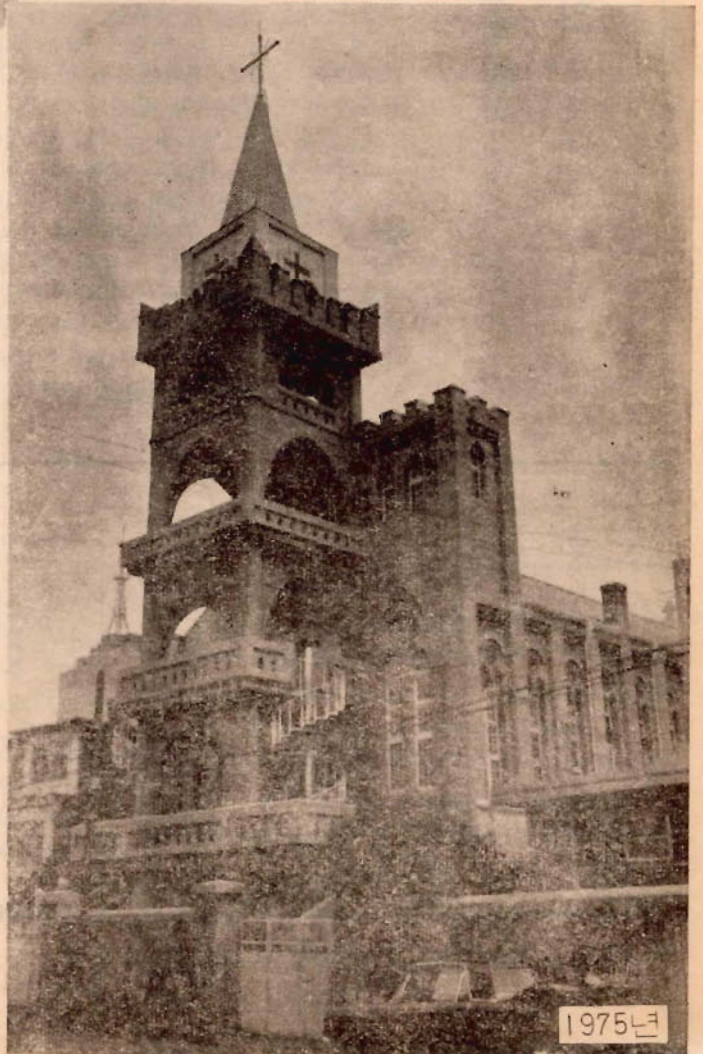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시 18:1)



<설립자/김창인 목사>

교회 주요 연혁

- 1953. 9. 6 첫 예배(시내 인현동)
설립자 김창인 목사
- 1953.10.26 충무로 5가 36번지로 교회 이전
- 1953.11. 1 유년주일학교 개교
- 1953.12.12 본관 건축 착공
- 1953.12.16 초대 제직회 조직
- 1954. 1.17 여전도회 조직
- 1954. 5. 8 당회 조직
- 1955.12.17 본관 준공예배
- 1956. 8.12 「동일」교회를 「충현」교회로 개칭
- 1957. 1. 2 남전도회 조직
- 1958. 9.30 김창인 목사 위임식
- 1961. 9.28 교육관(별관) 준공
- 1963. 1. 5 2부예배 실시
- 1963. 9.19 교회설립 10주년 기념예배
- 1963. 9.25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가입
- 1968. 9. 3 교회설립 15주년 및 김창인 목사 성역 31
주년선 기념예배
- 1968.11.24 해외복음선교회 조직
- 1971. 9. 9 서만수 선교사 대외 인도네시아로 파송
- 1973. 7.29 충현성경학원 설립
- 1963. 9. 6 교회설립 20주년 기념예배
- 1974. 1. 6 3부예배 실시
- 1975. 4.30 매주일 특별집회 실시



1975년

충현교회가 설립된 지 22년! 사람으로 말하면 대학교 4년에 해당하는 나이다. 그동안 충현교회는 많은 발전을 가져왔으며 보수교단의 지도적 역할을 감당하여 왔다.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하기엔 한국이 처한 정치·군사적 위치가 이것을 용납치 않으며, 더우기 민족복음화와 동남아 선교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해야 할 충현의 위치이고 보면 우리는 커다란 비전과 함께 새로운 임무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결코 구호만의 민족복음화나 총동원 전도운동이 아니다. 그렇다고 무계획적인 행사의 나열이어서도 안된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주장해 왔거니와 충현의 사명은 너무도 분명하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발걸음은 너무 느리고 비전을 가진 교회답지 않게 무기력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제 우리는 교회설립 22주년을 맞아 충현의 민족복음화의 지도적 사명과 동남아의 안디옥교회가 되는 일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느껴야 하며, 제사장교회로서의 기도와 사랑의 손길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사실 복음화는 우리 주님께서 비유하시듯 씨뿌리는 작업이다. 그런데 씨를 뿌리는 데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썩어질 것과 영생——이렇게 전혀 서로 다른 것을 거둔다(잠 6:7-8). 그뿐 아니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후 9:6).

그러면 이 씨뿌리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일이다(호 10:12). 물론 우리 충현교회가 이 정도라도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씨를 많이 뿌렸기 때문이지만 호 10:12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직 묵은 땅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단 한치의 땅도 묵혀서는 안된다. 모든 땅을 기경하여 거기에 성령을 위하여 복음과 의와 사랑을 심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땅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마 13장이 보여주듯이 마음의 밭을 의미한다. 좀더 크게는 우리의 재능·재물·시간 등 전 인생을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혹시나 우리에게 주님께 못다 바친 부분이 있는가 살펴보아야 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가시덤불과 잡초와 돌들로 가득찬 마음이 깨어지고 가꾸어져 참 포도나무되신 주님을 심어야 할 것이다. 이제 곧 가을이 온다. 알곡과 컙정이를 구별하는 심판의 날이 문 앞에 이르렀다. 따라서 주님이 주신 모든 달란트를 다해 일해야 할 때이다. 그 준비작업으로 먼저 묵은 땅을 기경하자. 그리고 그 위에 복음을 심자.

<주 잔>

차 례

<설교> 영광스러운 교회로/백성통복사.....3
<해외선교> 한국교회의 선교현황/손경수.....5
특집 ◇ 1975년 여름행사를 마치면서 ◇.....6
◇ 제 4회 농어촌전도 결과보고 ◇.....7
<전도수기> 내년에도 감시다/오택용.....12
<컬럼> 「자주 울게 하십시오」/이형수.....13
<에스겔서연구①> 하나님의 종 에스겔/윤영탁.....14
<구역공과> 9월분·사도신경.....11
<교회뉴우스>14

9월의 행사

- 7/ 교회설립 22주년기념주일·정기 제직회
- 14/ 남전도회 월례회·권사회 월례회
- 20/ 추석절 합동성묘예배
- 21/ 여전도회 월례회
- 21/ 교육위원회 월례회
- 28/ 교육연구위원회 월례회
- 28/ 주일학교 교사 월례회
- 30/ 정기 당회

◇ 김창인 목사 방송설교/기독교방송<840 KH>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영광스러운 교회로

—교회설립 22주년을 맞으며—

<엡 5:26-27>



백 성 통 목사

<부 목사>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라면 마땅히 영광스러운 교회로 불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하여 때로는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욕을 먹는 수가 있습니다.

서머나교회(계 2:8)나 빌라델비아교회(계 3:7)와 같이 불신앙의 도전을 받고 ①잘 싸워 ②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도전이야 받았든 안받았든 오늘날의 미숙한 자리에서 장차 완성될 교회를 이상으로 무한히 ③성장해 나아갈 길을 열고 있는 교회라면 영광스러운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1. 잘 싸운 영광스러운 교회

신앙생활은 곧 신령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기피한다면 마치 나라의 병역을 기피하는 것과 같은 일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신앙에 도전하는 세력이 언제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① 마음에서 싸워야 할 원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온갖 더러운 욕심에서 오는 유혹들입니다. 이것은 기도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물리쳐야 합니다.

② 말로 싸워야 할 적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릇된 진리들이 나를 공격하는 경우입니다. 이 때는 기도와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③ 행동으로 싸워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엔 선한 행실로, 그리고 사람과 윤율과 겸손과 인내로 이겨야 합니다.

이밖에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싸우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장입니다(엡 6:13-18). 그리고 믿음있는 용기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신자는 꼭 영광스러운 승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신자들의 모임이 곧 우리 교회여야 하겠습니다.

2. 칭찬 받는 영광스러운 교회

무슨 일에서나 칭찬을 듣는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칭찬에는 칭찬을 받기까지 여러가지 수고와 정성이 들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① 사람들에게 칭찬 받는 성도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무리 잘 믿는다고 자처해도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못했으면 칭찬이 오지 않습니다.

② 원수까지도 인정할 수밖에 없으리만큼 진실한 사람은 칭찬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랑과 진실을 떠나서 생활의 의미는 찾을 수 없습니

다. 사랑과 진실은 원수를 감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칭찬은 사랑과 진실에서 옵니다.

③ 주님이 칭찬하여 주시는 사람은 온전한 성도로서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원수들의 핍박을 받고 사람들의 미움을 사서 업신여김을 받을 때라도 주님만은 칭찬하여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결계를 지키는 일입니다.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하여서 또 원수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저해도 진실도 사랑도 될 수 없는 가증스러운 노릇이 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는 믿음의 결계를 지켜 주님께 칭찬 받는 교회입니다.

3. 성장하는 영광스러운 교회

생명이 약동하는 곳에 성장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영원한 생명이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므로 무한히 성장해 가는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대가족으로서의 교회는 「세상의 빛」된 책임을 다할 때, 그 영광을 지니게 됩니다.

② 빛의 책임은 사랑과 복종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사실을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③ 성령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사랑과 복종의 법도를 배우며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데서만 지속적인 교회의 성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와 사랑의 친교, 전도와 교육 등 오늘에 부과된 교회의 사명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생명사업에 동참하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 일이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교회는 새롭게 성장해 갑니다. 교회는 이 일에 더욱 분발해야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는 그 연분이 더할수록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몸소 영광을 지닌 교회입니다. 지역사회에서 그 빛을 발했면 작은 등불이 나라와 겨레를 비추어 주는 등대로 커졌다면 이제 는 오대양 육대주를 밝히려는 내일의 교회로 그 모습을 바꾸어 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가 받은 은사가 있고 그 날에 누릴 교회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이 피서기를 간구하며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종 에스겔

윤 영 탁 전도사

<본교회 전도사·총신 강사>

에스겔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원형(原形)은 히브리어의 「에헤즈케엘」로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뜻이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그 이름을 소유한 사람의 전 인격(全人格) 또는 그의 사람됨을 나타냄으로 대단히 의미심장한 것이다.

그러므로 에스겔 선지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의 이름이 그의 사람됨이 어떠한가를 말해준다. 이제 에스겔서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그의 신앙인격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에스겔 선지는 자신의 부족과 무력함을 인식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권능만을 의지하고 순종한 인물이었다.

에스겔 선지가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에스겔서에 93번이나 사용된 「인자」라는 표현을 통해 잘 알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시 146:3, 사 2:22)을 하나님의 주권 또는 권능과 대조적으로 나타낸다. 에스겔 선지가 자신을 「인자」라고 칭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가 그발강 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에 엎드렸고, 하나님의 음성을 엎드려서 들었다(겔 1:28, 3:23, 43:3, 44:4).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도 엎드렸다(겔 11:13). 그가 이와같이 엎드렸다는 사실을 에스겔서는 거듭거듭 밝혀준다. 겸손한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겔 2:1, 3:24) 그를 들어(겔 43:5) 귀하게 쓰셨다. 겸손은 이스라엘 백성의 경건생활의 근본적 요소이다. 어거스틴은 겸손의 중요성을 말함에 있어서 기독교의 교훈의 첫번째도 겸손이요, 두번째도 겸손, 그리고 세번째도 겸손이라고 했다.

에스겔 선지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다. 그는 더욱이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체험하는 축복도 받았다. 「여호와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겔 1:3).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요」(겔 3:22, 37:1 그리고 8:1, 40:1 참조). 「여호와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도다」(겔 3:14). 이것이 그의 간증이었다. 여기 「힘있게」라 함은 「강하게」라는 뜻으로 에스겔 선지의 이름에 사용된 단어(單語)이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강하게 하실 때에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네 얼굴을 굳게(原語로 「강하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네 이마를 굳게 「강하게」 하였고 네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강한」 금강석같이 하였으니(겔 3:8, 9)」라고 하셨다. 이제 그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힘있게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종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강하고 담대함이다(신 31:23, 수 1:9, 단 10:19, 시 27:1, 14 참조). 에스

겔 선지의 훌륭한 점은 그가 이와같은 용기와 겸손을(독일어의 Mut와 Demut!) 결비했다는 사실이다.

에스겔 선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면에 있어서도 보기 드문 본을 보여주었다. 에스겔 4장이 그의 순종이 어떠한가를 잘 나타내주는 예(例) 중의 하나이다. 특히 그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좌우편으로 눕는 일(겔 4:4-6), 그리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찰로 묶이운 일(4:8)등을 생각해 보자. 만일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라면 어찌나 장난과 같은 광경이었을 것이라고 한 칼빈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뿐인가? 그는 제사장으로서 할 수 없었던 「부정한 떡을 먹는 일」(겔 4:9-17)도 순종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아내를 잃은 후의 슬픔을 금지당한 일(겔 24:15-18)까지도 그에게는 어렵지 않았다.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한다”는 것이 그의 태도이다(겔 24:18 그리고 37:7, 37:10 참조).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란 무엇인가? 히브리어에는 순종이라는 단어(單語)가 없다. 그러나 그 대신에 「음성을 듣는다」라는 말로 표현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실 그 자체가 순종이라는 것이다. 이 얼마나 고차적 차원에 속하는 순종인가! 에스겔 선지는 바로 이러한 성격의 순종을 했던 것이다.

에스겔 선지는 다재다능(多才多能)한 인물이었다.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람의 노래를 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겔 33:32)라고 한 것을 보아 그가 음악에 타고난 재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일반적 지식뿐만 아니라 역사에도 조예가 깊었음을 예루살렘에 관한 기록을 통해 알게 된다.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비는 야모리 사람이요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겔 16:3).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게 되면 그가 어느 정도의 웅변가였는가 하는 것도 알게 된다. 이제 그의 붓의 위력을 생각해 보자. 그의 문체(文體)의 예술적임은 말할나위도 없이, 그의 문장(文章)의 감화력은 참으로 놀랍다(겔 15장, 16장, 17장 등등). 필자도 겔 16:4-14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감사함이 솟아올라며 눈시울이 뜨거워져곤 한다. 이 글을 읽는 자마다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비참했든가, 그리고 현재 너무나 분에 넘치는 은혜를 힘입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글을 한번도 읽어보지 못한 사람은 너무나 귀중한 것을 잃는다고 느껴 독자에게 일독(一讀)을 권한다. 에스겔 선지는 먼저 훌륭한 신앙 인격의 소유자였으므로 그의 재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되는 유익한 도구(道具)가 될 수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한국교회의 선교 현황

손 경 수 집사

〈중동부교사·기독교보편적부국장〉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지 어언 1세기가 가까와 오고, 그동안 한국교회는 내적으로 큰 부흥을 가져왔다. 74년도 교회통계에 의하면 한국에는 약 20여교단과 2만 교회수에 4백만의 신도가 있다.

그간 한국교회는 주로 국내전도엔 골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고 세계속의 한국교회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리만치 성령의 역사와 교회의 권위가 세워졌음이 입증된 실패라 하겠다. 그러나 이에 반해 국외전도는 이렇다 할 진전이 별로 없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한국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보낸 것은 지금부터 68년 전인 1907년이다. 당시 대한민국 예수교장로회 노회가 조직되어 그 기념사업으로 선교사역을 추진한 것으로 제주도에 이기종 목사를 파송한 것이 한국선교역사의 효시이다. 물론 현재는 제주도가 우리나라 영토이지만 그 때만 해도 꽤 거리가 있는 섬나라로 간주한 듯하다.

이로부터 1908년에는 러시아 연해주(沿海州)지방 해삼위에 최관환 목사를 파송했으며 1909년에 일본 동경에 한석진 목사를 파송했다.

이때만 해도 한국교회 장로회는 분별되지 않은 독노회 내지 총회인지라 일관성 있는 선교사업을 벌인 것 같다.

교회의 급격한 성장과 비대화로 또는 신학적 해석차이로, 전리와 비전리로, 장로교회는 사분오열되기 시작, 각기 제 나름대로 선교활동을 떠나가고 있다.

한국교회가 늘 「받는 교회」에서 이제 「주는 교회」로 탈바꿈이 된지도 많은 년수가 지나갔으며 우리 합동교단에서의 해외선교를 위한 구체적인 플랜이 세워지기도 했다.

그래서 총회 상비부 안에 「선교부」를 신설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선교활동을 계획하는 한편 이에 따른 인선 내지는 선교 후보자를 물색·파송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선교현황을 보면 태국에 김순일 선교사를 비롯하여 인도네시아에 서만수 선교사, 일본에 백병수·김형탁·김성엽 선교사를 파송했으며, 앞으로 일본에 홍종만 목사, 인도네시아에 이연호 전도사(내정)를 파송할 계획이다.

그리고 통합측에서는 대만·캐나다·일본·인도네시아에 7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그외 교단은 아직까지도 외국에서의 선교블로셔의 내국선교라 외지선교엔 힘을 기울이지 않는 실정에 있다. 우리 교단은 80년대를 향한 총회지표를 선정하면서 지난 해(74년 10월)부터 만교회운동을 실천키로 하고

75년도 목표 개척교회를 7백교회로 예정 전국 교회가 열심을 내고 있다. 이로 인해 다소 해외선교가 위축된 느낌을 갖고 있으나 총회선교부가 계획한 해외선교엔 큰 지장이 없는 것 같다.

한국적 상황에서 해외전출의 문이 그리 넓지 못한 입장에 있는때다가 아직까지도 개교회 중심의 부흥에만 안간힘을 쓰는 연유인지 앞으로의 선교활동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활발한 움직임이 있을런지는 미지수이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말씀을 의식한다면 가난하고 불안 속의 한국 백성들이 외국인에 의한 복음의 감격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받은 달란트를 복음전파에 실행을 기우려야 할때에 이상하게도 말로써 이론적으로 전개는 잘하면서 실천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 듯하다. 한 사람의 선교사를 내보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선교지에 적응할 수 있는 건강을 비롯 언어·습관·대인관계·선교대상 연구 등 다양성 있는 자격을 구비해야 하고 또 훈련기간이 상당한 년수가 필요하게 되며 이에 따른 선교비 총당이 목과할 수 없는 급진수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단이 7명의 선교사를 내보냈다는 사실은 결코 과소평가될 일은 아니다.

그리고 선교비가 총회에 적립된 재정이 아닌 개교회에서의 재정후원이라는 데에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된다 적어도 1인의 선교사에 대한 선교비는 매월 천불 이상이 되어야 선교활동에 지장이 없다.

이런 막대한 금액을 개교회가 담당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무리가 될 수도 있다. 좌우간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한다. 아직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밀림지역엔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백성이 있다. 이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감정과 흥분 속에서 「그리스도」만 외치대는 무분별한 선교참여를 다시한번 경성해 보자.

* 해외선교를 위한 이달의 기도제목 *

1. 인도네시아 선교관 건립을 위하여
2. 서만수 선교사 내외분을 위하여
3. 선교사후보(홍종만 목사, 이연호 전도사(해외선교회 내정))를 위하여
4. 일본 선교를 위하여

행사도 막을 내렸다

초가을의 서늘한 바람과 함께 맑고 드넓은 가을하늘 아래, 여름내 자라온 열매들이 실려간다. 이제 그 간의 여름 행사에서 땀 흘린 보람의 결실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쯤 일손을 멈추고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한다.

이번 호에는 그 동안에 진행된 여름행사의 결과를 총합의 모든 성도들에게 알리고, 잘한 점과 못한 점을 생각해 봄으로써 훗날의 여름행사에 도움을 삼고자 이 면을 마련해 보았다. 사정상 본래의 계획대로 종합적인 정리를 하지 못하고 설문 형식을 통한 몇몇 사람의 생각만을 실리게 되어 대단히 아쉽지만, 모두가 이번 여름행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데 의의가 있다면 그런 대로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편집자〉

영아부

교회에 오는 즐거움과 교회에 보내는 즐거움을

(1)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자!」는 주제아래 ① 어릴 때부터 교회에 잘 다니는 사람이 되게 하고 ② 교회에 오면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이 되게 하며 ③ 학부모의 뒷받침을 지도하자는데 목표를 두었다.

(2) 올해 신설된 부서로 여름성경학교를 맞이했으므로 비교할 수가 없다. 다만 시간·시기 문제에 대하여 성경학교를 하루 세 시간하는 것보다는 이를 잡아 내 시간 갖는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점, 또한 학령 전 어린이들이므로 여름성경학교는 봄에, 겨울성경학교는 가을에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3) 단 하루의 교육이었지만 영아들에게는 「교회에 오는 즐거움」을 학부모들에게는 「교회에 보내는 즐거움」을 안겨준 기회였다고 본다.

(4)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는 시청각교육이 더 많이 활용되어야겠다는 말들을 한다. 어린이와 함께 어머니도 배우며 활동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되게 연구하여야 한다고 본다.

(5) 올해는 마이크 고장으로 진행에 애로가 커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마이크실 관리가 잘 되



설문

1. 귀 부서의 이번 여름 행사의 목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2. 예년에 비해 계획에 있어 크게 다른 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3. 계획한 바대로 이루어진 성과(목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4. 다음 행사를 위해 꼭 기억해 두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입니까?
5. 다음 행사를 위해 교회 당국에 특별히 건의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있으면 싶다. 영아부는 유아들만이 아닌 어머니들도 참여하므로 예산상의 뒷받침이 좀더 필요하다.

〈정소영/영아부 지도〉

유치부

장소 좁아 어린이 통솔에 지장 많아

(1) 성경말씀을 어려서부터 잘배워야 할 필요성을 갖게 하는 데에 있었다.

(2) 저녁집회 후에 2부순서로 어린이와 어머니가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3) 찬송공부·운동·특활(성경책 만들기, 성경퀴즈) 등이었다.

(4) 분반공부시간을 좀더 강화하였으면 좋겠다.

(5) ①예산편성에 있어 이론보다는 실제에 맞도록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치부에서 계획한 인원보다 많은 학생이 참석하였는데 예산은 계획에 미달하여 애로가 많았습니다.

②유치부실이 대단히 비좁아서 학습활동에는 물론 어린이 통솔에도 지장이 많았습니다.

〈정연희/유치부 지도〉

새신자부 · 유년부 · 초등부

어린이 수양회

계절학교 교과과정을
만들었으면

(1) 성경을 가르쳐 신앙인격의 바른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었다.

(2) ①여름성경학교 개교 3일전에 먼저 읽는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전도집회를 가졌다.

② 특강 프로그램을 다채롭고도 학년에 맞도록 편성하였다.

(3) 모든 계획이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본다. 특히 과거 어려움이 많았던 교사 확보문제는 오히려 여유가 있었고 저녁예배 때에도 예년에 비해 많은 교사들이 참석하여 좋은 성과를 갖게 되었다.

(4) ①진행위원들을 사전에 교육시킬 것.

②간식을 충분히 준비할 것.

③교재를 여유있게 준비할 것.

④노회 강습회에 모든 교사들이 참석하도록 권장할 것.

⑤특별활동을 저녁예배 후에 할 것.

⑥비상약품을 준비할 것.

(5) ①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모든 진행을 해나간다는 자체가 모순이다. 유년부와 초등부가 구분되어 있는 이상 준비와 진행은 물론 모든 행사를 분리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야 공과공부도 철저히 시킬 수 있고 준비와 운영에도 보다 철저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②계절학교 교과과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③본당에서 영화상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년부와 초등부를 교대로 유년부실에서 환등만 보게 되는데 본당에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허락하면 좋겠다.

(이승근/유년부 지도)

어린이 수양회의
중요성 인식 필요

(1) 「참된 예배를 드리자」라는 주제 아래 시작하면서 부터 끝날때까지 예배의 모범을 익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 실시기간을 효과면으로 보아 작년의 3일보다 하루를 더 연장하여 4일로 하였고 매일 저녁시간에 부흥집회 시간을 둔 것이다.

(3)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거두었다. 예배의 참된 모습을 익히 기도할 줄 알게 되었고 부모형제에 대한 고마움을 깨닫게 되었고 특히 서로 돕는 협동정신을 고취시킨 점이다.

(4) 성장한 사람들이 갖는 수양회도 중요하지만 육체와 지적인 성장기에 있는 어린 생명들에게 주어진 수양회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담당자는 더욱 철저한 사명감과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한다.

(5) ①초등부의 중요행사로 제도화할 것. ② 장소는 입지조건이 좋고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 줄 것.
(서동성/초등부 교무처장)

고 등 부

생활속의 신앙훈련의 기회

(1) 실제의 생활 속에서 친교와 봉사로 신앙훈련을 하는 것이었다. 특히 회심의 체험을 통하여 성숙한 천국 일꾼이 되게 하는 데 있었다.

(2) 할애 없는 장기자람 · 운동경기 · 춘곡 등은 될 수

◇ 1975년 각부 여름행사 실시결과

부 별	회 수	실 시 기 간	장 소	주 제	강 사	인원출석		소요경비
						교 사	학 생	
영 아 부	제 1회	8월 1일	영 아 부 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자	정소영	18	아기 93 엄마 80	27,620
유 치 부	제 22회	7월 28일 ~ 31일	유 치 부 실	성경 말씀을 바로 알자	이승근	21	234	94,450
새 신 자 부	제 22회	7월 28일 ~ 31일	새 신 자 부 실	성경 말씀을 바로 알자	김종택	106	31 269 291	31,305
유 년 부	제 22회	7월 28일 ~ 31일	유 년 부 실	성경 말씀을 바로 알자	김종택	106	31 269 291	31,305
어 린 이 회	제 3회	8월 4일 ~ 7일	무궁화촌	참된 예배를 드리자	김태현	30	125	330,000
중 등 부	제 13회	8월 4일 ~ 7일	본 당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김진택	24	270	471,010
고 등 부	제 13회	7월 29일 ~ 8월 1일	무궁화촌	마음의 의심을 깨뜨리자.	김윤배	19	238	622,670
대 학 부	제 6회	8월 4일 ~ 8일	천 리 포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신성종	15	115	720,000
청 년 부	제 5회	7월 16일 ~ 18일	기 독 교 관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윤성원	5	135	220,000
장로수양회	제 4회	8월 11일 ~ 13일	운 수 리	말씀하옵소서, 성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정상우		18	180,000

있는 한 지양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귀한 시간에 은혜받는 데에 적극 치중하여 학생들의 신앙을 주제로 한걸음 더 가까이 하게 한 점이 예년에 비해 보다 더 특이했다고 본다.

(3) 성과는 거의 99%로 보기 때문에 다 말할 수 없고 그 가운데 특별히 「조별기도회」를 들고 싶다.

오직 은혜 받기만을 사모하여 전원이 부흥집회 시간에는 물론 쫓잡회 시간에도 철저히 매달려 기도하였으며 그것도 부족하여 속으로 돌아와서는 숲속 이곳 저곳에서 밤새워 기도하였다. 그 때 그 기도하던 모습과 기도소리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들려오는 듯 생생하다.

(4) ①늦어도 장소 선정은 6개월 전에 하여 두었으면 좋겠다.

②개회 하루전에 하기수양회 선발대가 출발하여 모든 개회를 하였으면 좋겠다.

③의료전문 담당교사가 꼭 필요한 것 같다.

(5) ①하기수양회인 만큼 장소선정에 있어 물가로 학생들을 인도하는 데 대하여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음니다.

②하기수양회 기간중 바쁘시지만 우리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께서 한번쯤 오셔서 학생들과 함께 예배·식사 등의 시간에 참석해 주셨으면 어떨는지요.

〈김일동/고등부 부지도〉

대학부

교회버스 운영으로 예산절약을

(1) Fellowship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요1서 4장 7절」이 주제이었다.

(2) ①예년에는 구분을 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하기수양회와 동기수양회의 목적(목표)을 구분하기로 하였다. 즉 하기수양회는 Fellowship을 위주로, 동기수양회는 신앙부흥을 위주로 하기로 한 것이다.

②교사가 직접적으로 계획·진행 등을 함으로 주일학교 체제로서의 일면을 보인 것이다.

③장소를 Camp장이 아닌 바다로 정하여 친목성을 강조한 것이다.

(3)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지만 대체로 Fellowship이 잘 이루어진 것 같으며 앞으로 대학부 내에서 Fellowship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출발점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여기서 성과의 성공성을 추정할 수 없다고 본다. 그 이유는 보통 Club에서도 4박5일 동안 해변에서 함께 생활할 때 우리만큼 친해질 수 없다는 평가를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에게만 신앙이 있다는 것이 저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4) ①수양회에 참석할 수 있는 교사를 대학부 교사로 임명할 수 있게 하여 오래전부터 계획을 짜고 답사하여 책임성있는 진행을 했으면 한다.

②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임원·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행사를 놓고 얼마나 기도로 준비하는가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③ 대학부만큼은 교사의 단일체제로서 일을 준비하기보다는 교사와 임원이 함께 준비하여 책임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5) ①장소선정에 있어 지도교역자의 의견과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여 지도교역자에게 최대한의 권한을 주며 특히 예산면에서도 최대한으로 보조해 주었으면 한다. 물론 지도교역자의 계획이나 목적이 교회에 의도하는 바와 다르다면 문제가 되지만 말이다.

②교통비로 뿌리는 돈이 작부마다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문제로 장거리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다고 볼 수 있으며 교회버스 운영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③수입 가운데는 X-money가 있다. 이러한 것은 양성화시켜 예산편성 때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면 한다.

〈안석렬/대학부 조교〉

청년부

부흥회형식으로 은혜 충만

(1) 집중적인 신앙훈련으로 각 개인의 신앙성장을 꾀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2) 행사중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한 부흥회 형식으로 은혜중심적인 진행을 한 것이 예년과 대조적이었다.

(3) 예상하였던 것 이상으로 많은 회원(135명)의 참석과 함께 모두가 신앙 간증에 서슴 없이 나서므로 은혜를 들통 받았다고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만족해 하는 것이 큰 성과였다.

(4) 수양회를 진행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진행에 착오가 없도록 확실한 장소파악이 사전에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5) 수양회를 부서별로 맡기고 방관보다는 교회 지도자들이 수양회중 참석하여 시간을 갖는다면 진행자들과 참석 회원들에게 큰 힘이 될 줄 믿는다.

〈권석기/청년회 회장〉



□제 4 회 농어촌 파송전도

많은 문제 속에 큰 결실

—한사람이 24명 결신케—

- ◇..... 우리교회가 농어촌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위해 전도대를 조직하고 이를 훈련하여.....◇
- ◇.....농어촌에 파송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72년부터이다. 올해도 예년과 같이 총 62.....◇
- ◇.....명의 대원이 9 대로 편성되어 경기·충북·충남·경북·경남 등의 전국 9개 지역.....◇
- ◇.....에 파송되었다. 8월 11일부터 16일까지 있었던 이번 전도대의 활동결과 보고회가.....◇
- ◇.....18일 저녁 유년부실에서 열렸다.◇
- ◇..... 여기에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날 보고된 내용을 중심으로 올해의 활동결과.....◇
- ◇.....를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아울러 이제까지 속시원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농.....◇
- ◇.....어촌전도에 대한 문제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 그 해결방안을 생각해 보자는 데에도.....◇
- ◇.....본란을 마련한 뜻이 있다.◇

□전도지역의 실태

올해는 예년과는 달리 충청도지방에 집중적으로 전도대가 파송되었다. 이는 올해 농어촌교회 지도자 초청훈련 대상지역이 충청도지방이었다는 데에 관계가 있다. 즉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훈련시키고 전도대가 파송되어 활동의 실재를 보여준다는 동시적인 이중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에서 이같이 실시된 것이다.

현지교회의 현황을 보면 담임 목사나 전도사가 전혀 없는 곳도 있었다. 평소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교인의 수는 최고 75명에서 10여명 정도 밖에 모이지 않는 교회도 있었다. 일년 예산 또한 최고 120만원에서 최저 15만원인 교회도 있었다. 평균 6명으로 조직된 1개 전도대가 담당한 교회 주위의 평균 가구수는 380여 가구였다.

주산물로 쌀·보리 등의 곡식재배지가 대부분이었고 잡업이나 담배재배 등과 같은 특수작물 재배지가 있었는가 하면 공장지대도 있었다. 공공시설로는 대부분 면사무소가 있었고 종교는 전통적인 불교와 유교를 비롯하여 사이비 종교와 심지어 극단적인 미신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는 지역도 있었다.

□전도대에 대한 반응

1. 현지교회

전도대의 파송을 반대하는 교회는 없었다. 도리어 전도대의 파송을 적극 환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지교회가 파송된 전도대와 강력한 연합전선을 펼 수 있도록 하자면 자신들의 역할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았으며 따라서 뜨거운 열정 또한 갖출 수 없었던 것 같다. 단지 그들은 서울에서 왔다는 그 사실만으로 선망의 눈과 함께 위

압감을 느끼고 환영하는 것 같았다.

대체적으로 전도와는 무관한 현지 교인들의 평소 신앙태도가 고질적으로 습성화되었고 이를 깨뜨리기에는 전도대의 영향력이 미급한 것 같다. 또한 이들이 파송된 전도대를 단지 손님으로 거리감을 두고 주시하는 것은 현지 교인들의 힘을 한데 묶어 제시된 목표를 향해 강력히 이끌만한 지도자나 일꾼이 전무하다는 태도 기인한 것 같다.

2. 현지 주민들

한마디로 말해 대부분의 현지 주민들의 복음에 대한 태도는 정면반대도 없었지만 적극 참여도 없다. 그들은 진정한 마음에서 우리나라를 않는 긍정적인 대답 한마디로 전도대와 자신들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지 않고 교묘히 빠져나가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문제성이 없이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드리는 것처럼 보일는지 모른다. 그러나 전도대가 파송되면 온 주민이 모두 믿을 것처럼 느껴지나 다음 해에 가보면 전년도와 별차이 없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문제성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근본적으로 농어촌사회의 생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 식의 이같은 전도활동을 해마다 계속한다면 현지 주민들보다도 도리어 전도자만 은혜를 받고 만족하여 돌아서는 기현상이 사라져지는 않을 것이 분명하다.

□현지교회의 결신자 육성 전망

가장 큰 문제이다.

파송된 전도대가 천신만고 끝에 한 영혼을 진심으로 결신시켰다 해도 갖 태어난 어린아이를 스스로 신앙생활을 영위할 만큼 성장한 믿음의 수준으로 키우지 않으면 안된다는 더 큰 난관이 따르는 것이다. 안정된 도시교회에서조차도 힘겨워하는 이같은 일을 겨우 개척교회상대를 벗어난 농어촌교회가 감당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로는 불타는 사명감을 가진 신력있는 지도자나 제직이 거의 없는 데다가 장차 지도자로 육성할 만한 젊은이들마저 최소한 때문이다. 여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겹쳐 더욱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같은 실정에 놓인 농어촌교회에 전도대가 복음의 새만 뿌려놓고 계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는다면 어떤 면에서 볼 때 도리어 현지교회에 힘겨운 부담만을 더 안겨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저 전도대 파송에 기울였던 만큼이라도 현지교회의 사후 결신자 육성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힘을 기울여 주어야만 확실한 결실을 보게 될 것이다.

□이번에 지적된 문제점들

1. 현지교회 자체의 문제점

- ① 지도자의 부재
- ② 제직과 일반 교인들의 교회활동에 대한 무관심
- ③ 교인들의 신앙생활 훈련 부족
- ④ 주일학교 교사의 부족
- ⑤ 과거 일부 교역자들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감

2. 현지 지역사회의 문제점

- ① 농어촌사회의 소극적인 생활습성
- ② 기독교에 대한 주민들의 그릇된 인식(기존 타종교나 사이비종교와 별로 다르게 생각지 않음)
- ③ 공장지대와 같은 특수지역의 특수한 생활양식
- ④ 경제적인 빈곤

3. 대원 자체의 문제점

- ① 현지 교회와 지역사회 특수성에 대한 사전지식의 결핍
- ② 전도대의 급조로 인한 최초의 전도대원 상호간의 이해 부족
- ③ 남자대원의 숫적인 부족

□1976년을 위한 제언

- ① 현지교회의 복음전파의 잠재능력을 키우는 교육

· 훈련이 축조전도와 병행되어야 한다.

- ② 대원의 철저한 노방전도 훈련이 필요하다.
- ③ 전도장비의 개선·합리적 분배·사용법의 사전교육 등이 필요하다.
- ④ 대장·회계·서기 등의 담당 업무별 교육이 필요하다.
- ⑤ 현지교회에 대한 형편이 사전에 자세히 조사되어야 한다.
- ⑥ 타종교와 사이비종교에 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 ⑦ 결신자와의 계속적인 관계유지가 필요하다.
- ⑧ 현지교회 교인들의 전도훈련이 필요하다.
- ⑨ 전도대의 구성은 남녀·청장이 고르게 할 필요가 있다.
- ⑩ 등기에도 전도대를 파송한다면 대단히 효과적일 것이다.
- ⑪ 농어촌교회 지도자 초청훈련과 농어촌전도가 보다 더 긴밀한 유기적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 ⑫ 전도대원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가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도록 한다.

□맺 음 말

이제까지의 농어촌전도대 파송에 있어 대원의 훈련·현지활동계획·사후처리 등이 만족한 정도로 용이주도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다. 그 결과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다할 성과를 열거할 수는 없다 해도 그러나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간 4회에 걸쳐 29개 교회에 183명의 전도대원이 파송되어 4,494명의 결신자를 얻었다. 그 결신자에 대한 신뢰도를 어느 정도 들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현재로서는 측정기준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앞으로의 전도활동에서 보다 나은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①농어촌의 환경과 생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②확실한 성과 측정기준을 마련하며 ③보다더 철저한 전도대원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담당자만이 애쓰는 연례행사가 되지 않도록 온 교우의 관심과 뒷받침이 꼭 뒤따라야 된다고 본다.

<정은표/충원지 간사>

1~4회 파송전도 현황

회 수	기 간	지 역 수	대 원 수	결 신 자 수	결신자율	소 요 경 비
1	6월	5	34명	725명	21명	263,000원
2	6월	6	36명	818명	23명	344,000원
3	6월	9	51명	1,494명	30명	424,000원
4	6월	9	62명	1,457명	24명	616,985원

※ 결신자율/전도대원 1인에 대한 결신자 비율

구역 공과

10월 공과

지난 1년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계명을 공부하였읍니다. 직접 간접으로 도와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사도신경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히 11:1~6
찬송/새 320(합 267)

때때로 사람들은 무엇을 믿느냐가 뭐 그리 중요한가? 문제는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냐 하고 말한다. 그래서 신학을 중요하고 교리를 붙신다. 그들은 말하기를 “교리가 사람을 갈라놓는다. 신학은 우리를 혼돈케 만든다. 그러므로 ‘사람과 생활만이 중요한 분이다’고 한다.

① 물론 교리가 선한 생활을 대치할 수는 없다. 사실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 참된 종교의 마지막 표준은 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삶이기 때문이다(마 7:21; 약 2:20).

② 그러면 교리가 왜 문제되는가? 인간은 본질적으로 무언가 믿게끔 되어 있다. 교리가 중요치 않다고 하는 것도 결국 하나의 신앙적 표현이다. 그런데 신앙이 중요한 것은 신앙이 그 사람의 행동과 장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현재 제3세계에서 정부가 엄격한 검열과 선전 그리고 교육과 청년운동을 규제하는 것은 무엇을 믿느냐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종교는 생활을 결정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교리가 아니라 생활”이라는 말은 잘못된 구별이다. 왜냐하면 신앙이(무엇을 믿느냐가) 생활을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이다(참고 히 11:6).

③ “언제라도 그들을 알지니” 기독교와 불교 힌두교 마호메트교는 그 생활의 양식이 전혀 다르다. 왜냐하면 신앙이 바로 생활의 형태를 규정짓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리, 즉 무엇을 믿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④ 인생은 반드시 기초가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인생을 집을 건축하는 일에 비유하셨다(마 7:24-27) 하시는 반석 즉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인생 다른 하나는 모래 즉 자기의 뜻위에 기초한 인생이라고. 그런데 전자는 신앙에 기초하고 있으나 후자는 불신앙에 기초한 인생인데 그 결과는 역경과 폭풍에 의하여 전자는 성공으로 후자는 실패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사도 바울도 인생을 건축에 비유(고전 3:9-15) 하면서 그리스도 위에 건축한 인생과 자기의 그 무엇에 건축한 인생이 있는데 그 결과가 불의 심판 때 나타난다고 하였

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바른 신앙위에 인생을 건축하여 참된 성공자가 되자.

성경/대상 29:10-19; 요일 4:7-16
찬송/새 33

사도신경은 성부·성자·성령에 대하여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사도신경의 첫번째 내용은 “전능하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이다. 흥미로운 것은 창세기 1장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하고 있고 사도신경은 (원문에 의하면) “내가 믿는다. 하나님을”——이런 순서로 되어 있다. 이처럼 모든 참된 종교의 기초는 “하나님이 계시다”란 확신 위에서 시작한다.

①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가? 모든 시대,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다 어떤 종류의 신(神)이든 믿어 왔다. 신에 대한 고차적 개념이 없을 때엔 그 대신 태양·달·소·뱀 등을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가상적 신을 만들기도 하였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신 또는 하나님을 믿는가? 이것은 그들이 증명할 수 있기에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궁극적 질문이나 깊은 요구들에 대하여 다른 해답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아름다운 그림이 있을 때엔 반드시 그것을 그린 화가가 있고 마음을 울리는 명작이 있을 때엔 그것을 쓴 지성 높은 저자가 반드시 있듯이 하늘의 별과 산 그리고 바다는 반드시 그것을 만든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

②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시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것은 과학이나 철학적 추측에 기초한게 아니라 성경의 증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증명하지 않고 다만 그가 계시다고 사실만을 말해주며 그의 목적과 성격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려 한다. 사실 성경을 편견없이 읽게 되면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계시임을 확신하게 된다(참고, 벰후 1:21).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③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마 6:9)

아버지란 한 인격을 말한다. 그러나 인격이란 손·발·몸·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지·정·의를 가진, 자기의식을 가진 존재라는 뜻이다.

④ 전능하신 하나님(대상 29:11; 계 19:5-6; 마 10:29-30)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아버지일 뿐 아니라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사도신경은 고백하고 있으며 그것은 곧 위의 귀절이 보여주듯 성경의 가르침이다.

⑤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창 1:1; 히 11:3; 요 1:3)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만물의 창조자로 고백한다. 위의 성기도 이를 증명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떠날 수 없는 관계를 가지신 인격적 아버지이시요 전능하신분 아니라 만물의 근본이 되는 창조자이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섬기니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 이 구역공과는 매월 계속해 실시됩니다.

내년에도 갑시다. 또, 또...

오 태 용

<중동부 교사>

사영리 중 제 1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로 되어 있다. 나는 지금까지 전도할 때 이 사영리를 꺼내 들고 상대가 귀담아 들든 말든 줄줄 읽어주며 설명을 덧붙이는 식의 전도를 해 왔다. 그럴 때마다 이 제 1원리는 늘 내 마음 한 구석을 어둡게 만들곤 했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가지고 계신다는 그 「놀라운 계획」이라는게 도대체 무엇이나 라는 의문이

.....
송산리교회에 도착하여 교회를 살피니 왈칵 눈물이 쏟아진다. 허물어진 벽에 비바람으로 젖진 초옥의 별채가 예장 송산교회라는 명패를 달고 동네 한가운데에 자리잡고 있었다. 밖이 그리니 안인을 오죽하랴! 바닥은 황도 구멍난 송판, 천장은 종이로 발려 있고 볼 볼 없는 장대상에 의자 몇개. 이것도 교회인가. 하나님의 성전이 부농의 목간만도 못하단니.
.....

었다. 도무지 밀도 끝도 없는 허구 같았다. 그러니 내 자신부터가 확신이 없는 그 전도에 생명이 있을 수 없었다.

그런데 최근에 나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문득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입고 무한히 감사했다. 내가 구별되어 부르심을 받은 (calling out) 때부터 지금까지 약 18년 동안을 곰곰히 생각해 보니 그진 세월의 순간순간 아니 한 해 한 해가 내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였던 것이다. 지금까지의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비추어 오늘날의 나를 생각할 때 또 앞으로 남은 나의 여생에서는 얼마나 더욱 놀라운 계획으로 나를 인도하시며 천성문으로 이끌어 주실까 생각하니 내 가슴은 미지의 계획에 대한 강렬한 동경과 더불어 매어지는 감격에 벌써부터 흥분하기 시작한다.

이것을 깨달은 뒤부터 나는 누구에게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제 1원리를 담대히 말할 수 있었으며 또 이 놀라운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하고 절망의 심연으로 자꾸만 빠져 들어가는 내 민족, 내 동포들에게 전해야겠다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이번에 하기 능어촌 전도대에 지원을 한 것이다.

그런데 제 2대 전도대장으로 정해진 것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견딜 수 없어 며칠 전부터 얼드려 졸랐다. 성령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조출한 전도훈련이 끝나 마침내 그 날이 왔다. 우리 일행 7명은 백목사님의 기도 전송을 받은 후 아침 일찍 동향인 1대와 더불어 강항선 특급열차에 올랐다. 6:25 때 죽음의 전장터로 떠나는 병사의 모습을 그려 보며 목적하는 충남 서천군 한산면 송산교회를 차창

너머로 상상하다가 문득 이 열차는 대전행의 피석열차도 겹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야, 누구는 바다로 해변으로 가는데... 이게 뭐냐, 나는? 그러나 마음은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다.

1대는 흥목사님을 중심으로 저쪽에, 우리 2대는 오른쪽에 여자 네분, 왼쪽에 남자 셋이 자리잡았는데 내 옆 창쪽에는 웰 증년의 불이 잘 잡힌 신사가 선접해 앉아 있었다. 첫 인상이 보통을 벗어난 분이였지만 사면초가의 그가 우리를 헤아날 수는 없었다. 언제나 확신에 넘치는 전도의 기수 조관식 선생이 그에게 접근을 시작했다. 그 다음 내가 들어갔다. 얼마 후에는 우리 지도교역자이신 이집사님이 뛰어들었다. 마지막으로 서천역에서 같이 내릴 때에는 1대의 대원들도 밀쳐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실패했다. 한 영혼을 두고 비시간 반 동안 두 대가 합세해서 증거했는데도 그는 끄덕을 아니하였다. 자칭 십여년 이상을 신앙생활한 사람, 자기 친구들 중에도 목사가 많이 있는 사람, 기독교의 독보적 우월성을 인정하고 따라서 교학(敎學)으로서는 기독교가 최고라는 사람, 그래서 자녀들은 교회에 나가게 한다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종교가 필요하지만 자기 혼자만은 완전한 인간이기에 기독교가 필요없다는 사람, 「구원은 오직 예수」라는 명함을 차고 전도하는 너희들은 예수에 미친 광신자들이라는 사람, 천당과 지옥은 가짜야 알지만 자기는 천당 가게 되어 있다는 사람. 아, 주여 이 사람들.....자아(ego)로 꼭 차서 성령님이 들어갈 틈을 허용치 않고 끝내 그리스도를 떠나버린 이 안타까운 영혼. 그는 우리에게 인사하고 총총히 사라져 갔다.

우리는 당했다. 성령님께 말긴다고 하지만 전도가 두려웠다. 내게 지성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는 나보다 더 강했다. 내게 경험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는 나보다 더 풍부했다. 내게 실력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는 나보다 더 유능했다. 그렇다, 버리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버리자. 내 마음을 비우고 성령님께만 의지하여 그가 시키는 대로 주시는 대로만 하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법을 깨우쳐주기 위해 하필이면 그 신사를, 하필이면 우리 열차, 우리 칸, 우리 자리에 앉혀 주시고 우리의 목적지 역까지 동승케 해주신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나는 이번 전도시 시종일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성령님께 그 영혼을 내게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전도했다.

송산리교회에 도착하여 교회를 살피니 왈칵 눈물이 쏟아진다. 허물어진 벽에 비바람으로 젖진 초옥의 별채가 예장 송산교회라는 명패를 달고 동네 한가운데에 자리잡고 있었다. 밖이 그리니 안인을 오죽하랴!

바닥은 휘고 구멍난 송판, 천정은 종이로 발라 있고 불꽃없는 강대상에 의자 몇개. 이것도 교회인가. 하나님께 거룩한 성전이 부능의 극한만도 못하다니. 이렇게 누추한 곳에 어느 누가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들어오며 또 전도는 어떻게 할 수 있담.

교회가 이끌어니 교인들인들? 하고 넘겼었는데 그건 잘못된 속단이었다. 도학예배를 드리는게 난대없이 와

1 대와 더불어 장항선 특급열차에 올랐다. 6:25 때 죽음의 전장터로 떠나는 열사의 모습을 그려보며 목격하는 중남 서천군 한산면 송산교회를 좌장하여로 상상하다가 문득 이 열차는 대천행의 피서열차도 겸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야, 누구는 마다로, 해변으로 가는데 이게 뭐냐, 나는? 그러나 마음은 일 수 없는 기쁨으로 흥만해 있었다.

창창광명, 천정에서 쥐들의 비상소집이 걸린 것이다. 그것은 우린 환영하는 시위라기 보단 대장 예수의 것 발에 마귀가 쫓겨간다는 전조였던 것이다.

4시에 새벽 제단일 나가니 약 20여명 참석했다. 우리는 놀랐다. 사오십명 교인 중에서 이렇게 일찍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러 나온 것을 보고, 또 일년내내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을 듣고 이게 바로 이 교회의 지력이구나 생각하니 세상 교인들과 교역자가 존경스러웠다. 우리는 하루 여섯시간 정도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또는 길거리, 논두렁과 밭에서 전도를 했다. 어떤 때는 중학생 또는 처녀, 젊은이들, 중년의 농부, 노인네들, 그리고 국민학생들까지 만나는대로 전도했다. 만날 때마다 「아버지여, 주께 맡깁니다. 성령님께서 이 영혼을 내게 붙여 주소서」라 기도하고 전하니 거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 실로 열차에서의 실패가 큰 교훈이 된 것이다. 우리는 한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믿기를 결심할때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방법을 썼다. 우유부단한 충청도 기질상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정한 결심은 별로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많은 촌로들이 복음에 대해 들어본 일이 없다는 놀라운 사실이었다. 그저 농사 짓고 살다 죽으면 그만이라는 절망이 벅속깊이 박혀 있었다. 그럴 때마다 우린 안타까운 심정에 우리 자신의 가슴을 치며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기에 전담했다.

나흘간의 전도에서 놀라운 사건도 많았다. 모기와 독서 속에 환자는 속출하는 데에 시골서 도리가 있나. 하나님을 떠난 청년이 우리 밤집회를 방해하다가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고 제직의 선봉기까지 갖다주어 우리를 편케 해주기도 했다. 여 제직들의 호주 어른이 믿지 않다가 우리의 전도로 교회에 나온 것을 본 집사님의 감격어린 눈물은 우리의 가슴을 메어지게 했다.

우리는 625장 찬송을 부를 때 「나를 보내소서」라고 손뼉치고 북치며 악을 쓴다. 시골서는 결신카드를 적을려면 교회에 못갈 경우 죄가 하나 더 생긴다고 안적으려 하는데 우린 625장을 장난으로 자기기만적으로 부르고 있다. 농촌교회는 여전상 이곳에 전도하기 힘들다. 우리가 가서 집중적으로 전도해야 한다. 농촌은 복음의 황금어장이다. 우리를 부르고 있다. 바울을 전할 수 없게 만들었던 저 마케도냐의 손짓. 지금도 눈을 감으면 어서 오라는 마케도냐의 애절한 손짓에 가슴이 탄다. 내년에도 잡시다. 또, 또..... *

1200자 컬럼

자주 올게 하십시오

이 형 수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열여덟이 오천으로 변했고 날마다 더해지는 새로운 것 속에 뒤돌아보아도 찾을 수 없는 옛것들을 쌓아 놓으며 스를 두배의 연륜을 쌓았습니다.

이제 오는 날들은 자주 올게 하십시오. 눈물이 우리 삶의 도처에서 흐르게 하십시오. 이 눈물로 우리 자신을 해탈하게 짓기도록 하시고 이 눈물이 넘쳐서 이 땅의 곡식들을 살찌게 하시고 이 땅의 더러움이 씻기도록 하십시오. 눈물이 넘쳐흘러 이 땅의 목마름을 해갈시키는 단비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이 비옥하고 번창하게 하는 값진 비료가 되게 하십시오.

이제 오는 날들은 자주 올게 하십시오. 이 울음 소리 가운데 우리 자신에 대해 절망케 하십시오. 모든 비탄을 맛보게 하시고 온갖 모욕을 당케 하십시오. 눈물 없는 22년의 세월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무가치했든가를 깨닫게 하십시오. 이제 조금씩은 어리석게 하시고 그 똑똑한 사람들로부터 바보 소리를 듣게 하십시오.

이제 오는 날들은 자주 올게 하십시오. 그 많은 변화 중에 유일하게 변하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이 이 눈물 속에서 변하게 하십시오. 변하지 않은 우리의 마음은 인색과 불충성이었습니다. 이 눈물 속에서 요셉의 성실을 배우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라.....」란 창세기의 기록을 실감하게 하십시오.

이 눈물 가운데 야곱의 인내를 깨닫고 우리가 열단되게 하십시오. 이 눈물 중에 담대하고 당당하게 전진하던 여호수아의 용기를 체험하게 하십시오. 이 눈물 앞에서 다윗의 진실을 배워 주십시오. 그래서 참된 찬양과 간절한 사랑을 주게 하십시오. 이 눈물 속에 성전지던 선지 예스라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십시오.

이제 오는 날들은 자주 올게 하십시오. 그 울음 속에서 「교회 잘 다니면」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우리가 되게 하십시오. 「예수 잘 믿는」 것은 「모든 것」의 근본임을 알게 하십시오. 천 마디의 말보다 한 방울의 눈물이 값진 줄 알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루가 시작하는 첫시간에 우리의 툇한 입술에서 「하나님이여.....」라는 탄식으로, 호소로, 감사로, 환희로 우리의 일상이 열리게 하십시오.

첫 합동친교대회 앞으로 한달

—체육대회를 중심으로

10월 9일, 오산중고교에서—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 펼쳐질 「총현」의 5천여 성도들을 위한 합동친교 대회가 앞으로 한달여를 남겨놓고 있는 데 교회는 이 대회를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교회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누가 누군지조차 알 수 없고 적은 교회와 같은 오붓함을 맛볼 수 없다는 것이 평소 누구나 느껴온 아쉬움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조직의 비대로 성도간의 정서관계가 약화된다는 것은 어쩔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도의 교제를 위해 이와 같은 약점을 방관만 할 수 없다는 데서 이번 합동친교회를 개최하게 된 동기라고 한다.

이번 합동친교대회의 대회장에는 김창인 목사, 위원장에는 한명욱 장로가 선출되었으며 그 아래로 총무부, 진행부, 기록부, 기획부, 동원부 등의 대회를 위한 부서를 두고 있다.

특히 실제 합동친교대회를 위한 각종 경기 진행에 서로 힘과 지혜를 겨룰 조직을 보인 다음과 같다. 즉 현재의 구역권찰회 조직을 그대로 이용하기로 하되

먼저 동군·서군·남군·북군 등 4군을 동군·서군·남군·북군 등의 4군으로 나누었다. 각 군에는 군별 대장이 있으며, 군별 대장 휘하에 6~7개 구역을 1대로 하는 3개 대대를 두었다.

그러므로 4군은 다시 12개대로 나뉘었고 각 대는 6~7개 구역이 1개대로 조직되었다. 앞으로 세부계획과 일정 등이 게시판과 구역을 통해서 발표되리라고 하는데 모든 성도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고 한다.



주교 각부 성경암송대회

—가을 맞아, 설교대회도—

각부 주일학교에서는 가을을 맞아 성경암송대회, 성경퀴즈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영아부는 오는 9월 25일 「잔주된 십계명」으로 성경암송대회를 실시하고 유년부는 21일에 성경퀴즈대회를, 초등부는 21일에 「산상수훈중에서」 성경암송대회를 갖는다.

고등부도 21일에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성경퀴즈대회를 갖는다.

또한 청년부는 이색적으로 「설교대회」를 7일에 갖는데 회원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자유제목으로 10분 내외로 할 계획이다.

120여명 참석

—여전도회 수양회에—

우리교회 여전도회는 지난 8월 18일부터 8월 22일까지 총회신학대학에서 열린 수도여전도회 연합

회가 주최한 하기수양회에 120여명의 회원이 참가하였다.

남전도회야외예배

—8월 15일 경기도 마석에서—

남전도회는 지난 8월 15일 경기도 마석에서 남전도회 야외 예배로 모였다. 83명의 회원이 참가한 금번 야외예배는 숫자적인 면에서 예년에 볼 수 없었던 많은 수가 참가했다.

예배와 친교로 이어져 하루를 즐겁게 보냈는데 금번 기회를 통해 신입회원과의 친교도 큰 향상을 보았다. 또한 9월에는 계획되었던 조별릴레이 성경암송대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성경은 로마서 10장이다.

영아부 집회 안내

1975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교회는 영아부 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구상하여 오던 영아부가 탄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하여 천국일꾼을 바로 키우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미 6개월의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 귀한 집회에 온 가족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0세~만 4세 어린이와 어머니 (가족)

2. 교과과정 : ①예배 ②기독교가정의 생활원리 ③정서교육 ④부모와 가족관계 ⑤육아법 ⑥아동위생 ⑦문제야교육 ⑧놀이 지도

3. 시간 : ①매주일 예배 오전 9시~10시 ②목요일

7.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L. 어머니 특강(총현의 모든 부모 및 가족)

※ 9월에는 홍기형 교수와 김득룡 교수의 「문제야교육」에 대한 특강이 있습니다.

총현교회 주일학교교장 김창인
영아부 부장 김한울

75년도 여름행사 종료

—8월 16일 농어촌전도를

마지막으로—

1975년도 각부처의 여름행사가 지난 8월 16일 저녁 9대의 농어촌파송전도자들이 환한 미소를 띄고 돌아옴으로 금년도 여름행사의 막을 내렸다.

예년에 비해 계속되는 더위가 한층 심했던 금년의 여름이었지만 그 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열심으로 성장하는 일에, 전하는 일에, 깨달는 일에, 힘을 썼다.

아래는 금년도 여름행사의 결과이다.

※영아부

기간/8월 1일

장소/영아부실

참가인원/교사—18, 영아 93, 부모 80.

※유치부·새신자부·유년부·초등부

기간/7월 28~31일

장소/충현교회

참가인원/교사 127명, 어린이 591명

※어린이회(초등부 5학년)

기간/8월 4~7일

장소/무궁화촌

참가인원/교사 30명, 어린이

125명.

※중등부

기간/8월 4~7일

장소/충현교회

참가인원/교사 24명, 학생 270.

※고등부

기간/7월 29~8월 1일

장소/무궁화촌

참가인원/교사 19명, 학생 238명.

※대학부

기간/8월 4~8일

장소/천리포

참가인원/교사 15명, 학생 115명.

※청년부

기간/7월 16~18일

장소/기독교수양관

참가인원/교사 5명, 학생 135명.

※장로 수양회

기간/8월 11~13일

장소/운수리

참가인원/장로 18명.

※농어촌파송전도

기간/8월 11~16일

장소/전국 9개지역

참가인원/62명

1975년 제2학기 성경학원

학생모집 안내요강

목 적 : 신구약, 성경을 학습하여 진리에 입각한 건실한 생활인과 교회 봉사자를 육성하는 데 있음.

입학자격 : 본교회 남녀 세례교인(단, 연구반은 고졸 졸업 이상의 학력자)

원서제출 : 충현교회 성경학원 사무실

제출기간 : 1975. 8. 20~9. 12.

전형일시 : 1975. 9. 13(토)~저녁 7시

전형방법 : 면접(성경학원 사무실에서)

개 화 : 1975. 9. 15. 저녁 7시 30분

납 부 금 : 입학금 1,000원 수업료 2,000원 교재대 1,000원 합 4,000원
수업기간 : 1975. 9. 15~12. 20.

교과과정 : 학습반/성경교리·시서·선지서·계시록·특강

연구반/성경교리·야모스·사도행전·기독교교육·영어강독·렐라어성경·이단비판.

기 타 : 본학원에서 6 학기를 수업하면(학점제) 신구약성경 전권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의 상세한 것은 성경학원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막소식

* 9월 20일 추석절을 맞아 교회에서는 금년에도 「충현등산」에 합동성묘를 하기로 하고 지난주까지 신청을 마쳤다.

* 영아부와 유치부는 9월 25일 제 3 학기 성경시험을 치른다.

* 유·초등부는 9월 한달은 일제 심방의 기간으로 정하고 일제 심방과 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 새신자부는 오는 9월 28일 등반 실적이 우수한 교사에게 표창을 하리라고.

* 중등부는 지난 8월 17일 공과공부를 마친 후 중등부 회의실에서 연구수업을 가졌다. 3~9반(김옥경 선생)을 대상으로 했다.

* 중등부는 지난 8월 31일 성경암송대회를 가졌다.

* 고등부는 지난 8월 24일 조별대항 성가 경연대회를 가졌는데 조편성은 학년 단위로 남·여 각 1개반을 합쳐 1개조로 하였다.

* 고등부는 지난 8월 24일 분반공부시간에 성경시험(16과~32과)을 실시.

* 대학부 성가대 수양회가 지난 7월 31일 ~8월 1일까지 청평 소재 청산여상 캠프장에서 신성종감도사를 강사로 모시고 실시되었다.

* 청년부는 지난 8월 17일 일제히 조개편을 실시했다. 총 10개조로 남자 72명 여자 107명이 참여하였다.

* 청년부는 지난 7월 한달 동안 지도교역자 정상우 목사의 휴가로 윤영탁 전도사가 아침 강의를 했다.

* 교육연구위원회는 8월 정기회의를 지난 8월 24일 특별집회 후 가졌다. 정은표 집사의 「충현교회 인력조사 계획」에 대한 2번째 발표와 정홍식 집사의 「우리교회 주일학교교육의 평가 문제」발표가 있었다.

* 성가부 수양회가 9월에 열리게 된다. 교회의 모든 하기활동이 끝난 9월에 예배당 한쪽을 차지하여 성령에 불을 받고싶은 마음으로 여성성가대와 제일성가대가 함께 9월 25일~27까지 3일간 갖게 된다.

기자석

○...점선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발을 벗고 점잖게 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열 사람과 소근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배시간에 말이다. 예배시간에 참여한 정신은 좋은데 가장 귀한 「하나님께 향한 진실한 마음」은 어디에 빌려주고 온 모양이다. 얼마 전 우리교회에 오셨던 중국인 목사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단다. 그분은 「이해를 못할 일」이라고 하시더라... <이>

○...전달 수 없을 정도로 더운 여름에 극성스럽게 전도를 하고 온 우리 전도대의 모든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복이 임하실 것을 믿는다.

어떤 사람은 이처럼 전도를 하는데 지난 6월부터 벌인 「총동원 전도」의 안드레 전도법이 아직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전도부에서 올 상. 구역을 중심으로 벌리고 있는 이 전도에 어느 구역에서는 일체의 보고가 없다고 하니... 이것도 더 위 맞인가? <해>

○...지난 부활절을 계기로 시작된 특별집회가 갈수록 참석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청년과 대학생들 중심으로 시작한 집회에 청년과 대학생들의 모습이 별로 안 보인다는 것도 묘한 일이다. 참석하시는 분의 말씀은 「무척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인즉 「우리가 일 주일을 생활하며 것처럼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느냐? 맘껏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라고 하는데... 그러면 참석 안 하시는 분은 집에서 복지며 찬송하고 통성기도하고 하는가 보다. 그렇다면야... 묘한

일이다. <수>

○...일이란 것은 하면 할수록 쉬워진다는데 어떻게 「총원」지는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니 그 또한 모를 일이다. 하지만 금년의 목표는 지금까지는 달성한 편, 앞으로 세번만 잘 나오면 100% 목표 달성인데, 한심한 일이다. 더 잘 할 생각은 안하고 호수 채울 생각만 하게 되다니. <숙>

○...보았다. 그래서 생각한다. 해소적인 울림속에 되돌리는 단어들과 또 한계점을 강조하는 듯한 저미소의 의미들... 흡사 현실과는 독립된 특수 지대인듯 이질적 표현방법과 따르는 자만감으로 자기도 취에 젖어든 것 같다. 굳은 바위를 뚫는 낙수처럼 한계점에서의 꾸준한 두드림이 결실을 맺을 때 「총원」은 우리들 속에 녹는 소금이라. <재>

○...지난 8월 18일 저녁, 유년부실에서 한 모임이 있었다. 「제 4회 농어촌 전도대 결과보고 및 종합평가」를 위한 모임이었다. 보고서를 들고 나와 보고하는 전도대원들은 하나같이 전도자로서의 참 기쁨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체험하였다는 간증이다.

그러나 의욕에 찬 뜨거운 이들의 보고와는 달리 좌석의 분위기는 너무도 썰렁하였다. 정말 무더운 한 여름밤처럼 뜨겁게 말이다. 이들의 손을 덥서 감싸주며 「정말 수고들 했소!」라는 소박한 인사를 나눠주는 사람 한 사람 없다. 이런 현상이 「시작도 전해도 당신들이 했으니, 끝맺음도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라는 식의 무관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를 비는 마음 간절하다. <표>

편견하고 나서

◇...무척 불쾌한 여름이었습니다. 물러설 줄 모르는 여름은 언제까지 버틸 것 같았으나 어길 수 없는 약속처럼 찾아온 자연의 법칙은 그 불쾌했던 여름을 저만치 떨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여름에 너무나도 많은 수고를 하신 여러분들(여름성경학교·여름수양회·농어촌전도...)께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의 생애에서 그 노력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믿습니다.

◇...모든 행사가 행사로 끝나버리는 경향이 있다. 반드시 새로운 변화가 뒤따라야 하건만... 그 행사에서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후의 변화는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슬한 행사를 치루고 난 각 부식들은 지금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가? 조그마한 변혁들이 대동해야 할것다. 올해의 여름행사를 정리하다 보니 더욱 그런 생각이 절실해진다. 하나님은 이 어려운 여름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 우선 감사, 감사부터 드리고.....

◇...3회에 걸친 정상우 목사님의 「성령론」이 지난 호로 끝났다. 많은 성도들의 반응과 격려에 힘입어 이번 호부터 율영락 전도사님의 「에스겔서 연구」를 실는다. 앞으로 계속 「에스겔선지자 활동한 시대적 배경」 「에스겔선지자의 업적」 등을 실게 될 것이다. 많은 기대 속에 다음 호를 기다린다.

◇...농어촌전도를 갔다 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기쁨에 넘쳐 있다. 모든 불리한 여건 속에서, 일생 처음에 보는 고생 속에서 무엇이 그들을 이처럼 기뻐 싱글벙글하게 만들었던 말인가? 오택용씨의 「농어촌전도수기」를 실었다. 짧은 저성이 본 농어촌교회, 전도, 그리고 우리들. 그는 분노와 비애와 희망과 기쁨을 섞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내년에도 갑시다. 또, 또.....」라고.

◇...교회 설립 22주년을 맞는다. 22년이란 세월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교회전통을 생각치 말고, 11주주일학교를 내세우지 말고, 5천의 교인을 보지 말고, 「나」를 돌아보자. 무엇이 변했는가? 과거의 「나」와 오늘의 「나」와 앞으로의 「나」를 생각해 보자. 똑같은 등식(等式=)이 성립되지 않는지..... <월>